

# 라틴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

마지막 마당  
새로운 시작의 끝

# 스페인 제국의 건설

- Juana, la loca=> 부르고뉴 공작 Felipe, el Hermoso(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)와 결혼
- 장남- Carlos V (재위 1516-1556)
- 1500년 벨기에 헨트에서 탄생, 합스부르크 왕국 상속(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영토의 통합)
- 스페인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오스트리아, 독일, 이탈리아, 아메리카 통치
- 차남- Ferdinand I, 독일황제 (재위 1556-1564)

- 1504년 이사벨 여왕 사망 (남편 페르난도 왕은 1516년 사망)=> 스페인의 분열 초래
- 후아나=> 남편의 불륜 목격 후 충격=> 1502년부터 정신착란 증세 시작
- 1504년 11월 까스띠야 왕위에 오름
- 페르난도, 딸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까스띠야 왕권을 가로채려 함
- 정신착란 증세가 심해지자 남편 펠리페가 거주하는 네덜란드로 감=> 페르난도 왕의 섭정 시작=> 1506년 펠리페 스페인으로 귀국, 장인에게 스페인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



자료출처: 본인

- ▶ 이사벨 사후 페르난도 왕의 까스띠야 왕국 지배 야욕=> 외손자의 까스띠야 및 아라곤 왕국 왕위 계승 대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계승케 하려는 야욕=> 1505년 10월 루이 12세와 Blois 조약 체결=> 루이 12세의 질녀 제르멘 드 푸아와 재혼=> 1509년 아들 탄생 후 수시간만에 사망(까스띠야 왕국 통치권 확보에 대한 야망 및 아라곤 왕국을 합스부르크가로부터 지키려는 계획 물거품)=> 스페인 분열 방지됨
- ▶ 펠리페와 까스띠야 귀족 연대,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에게 대항(까딸루냐인이라고 비하)

- ▶ 펠리페, 영국 헨리 7세와 조약 체결, 동맹 맺음, 까스띠야 귀족들의 지지=> 권력 독점=> 1506년 열병으로 급사=> 후아나 정신병 심해짐=> 1509년 Tordesillas 성에 유페 (1555년 사망)=> 사망시까지 까스띠야의 여왕으로 지냄
- ▶ 까스띠야 왕국- 1510년에 페르난도를 왕국의 관리자로 임명=> 외교 및 이탈리아 문제에 전념, 내정은 추기경 시스네로에게 위임

- 1516년 사망, 자신이 아끼던 둘째 외손자(스페인에서 성장)가 아닌 첫째 외손자(스페인어 구사 못함, 플랑드르인 우대)가 왕위계승하는 것 마지못해 허용
- 1516년 Carlos 황태자, 왕위 계승
- 1519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 사망=> 왕위 계승
- (스페인 Carlos 1세, 신성로마제국 Carlos 5세)
- 생애 대부분을 스페인 밖에서 보냄
- 세속적 권력과 기독교의 정신적 권력을 접목시키려 함
- 스페인 내부의 반발, 수많은 반란
-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, 반란 주도=> 1525년 패배, Carlos 5세에게 포로로 잡힘

- 교황 클레멘스 7세, Carlos 5세에 반감=> 1527년 스페인군 로마 침공=> 로마 약탈, 교황청 포위, 6개월 뒤 교황 석방=> 1529년 나폴리와 밀라노 왕위 계승
-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=> 신교도와 의 성전=>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
- 1556년 스페인의 수도원에 은거, 사망
- 아들 펠리페 2세(1556-1598)- 스페인, 네덜란드, 프랑쉬 콩트, 밀라노, 나폴리, 아메리카 상속
- Carlos 1세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, 독일제국 상속

- 부친과 달리 항상 스페인에만 머무름
-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이자 쇠퇴의 시작
- 1557년 1월 1일, 스페인 왕실의 재정파산 선언 (스페인과의 끊임없는 전쟁의 결과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의 재정이 파탄)=> 유럽의 일시적 평화
-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이 스페인 왕실에 더 이상 돈을 빌려 주지 않음

# 재정파산

- 국왕과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그 비용을 추후에 메꾸는 방식으로 재정운용
- 급전 필요할 때 상인들에게 대출 받음
- 대출금 상환 위해 다시 대출 받는 악순환 반복
- 1556년 7월에 Felipe 2세 즉위시 1561년까지의 정부 수입이 전부 저당 잡힌 상태
- 지속적인 전쟁 수행 위해 거액의 단기부채를 고리로 빌리는 행위 반복- 제국 내 국유지나 광산, 특정 사업 운영권이 상인의 수중으로 넘어감
- 이자율 강제로 낮추거나 파산선고 이외에는 해결방법 못 찾음
- 1560년, 스페인의 파산선고- 차입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단기부채를 연 5%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(juros)로 강제 전환
- 스페인의 파산선고 반복(1575, 1596, 1607, 1627, 1647, 1653년)
- 1660년대에 이르면 정부 수입 중 70%가 이자 지급용으로 사용, 원금은 정부소득 10년치에 해당

-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지중해의 패권 다툼 => 1571년 레판토 해전 승리
- 포르투갈 왕위계승 문제발생, 내분 => 스페인군의 포르투갈 침공 => 1581년 4월, 펠리페 2세 포르투갈 왕에 등극
- 해가 지지 않는 제국 건설, 스페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, 동시에 쇠퇴 시작
- '세계의 경찰' 자처: 악의 축 신교도 국가들에 맞선 가톨릭세계의 수호자 (미국: 자유진영 vs. 공산진영, 테러와의 전쟁 vs. 이슬람 세계, pp. 202, 205) (스페인-유대인 추방; 미국-유대인 포용)

# 스페인 제국의 쇠퇴

- 1533년 잉글랜드 국왕 헨리 VIII(재위 1509-1547년), Anne Boleyn(1507-1536) 과 결혼하기 위해 로마 교황에게 스페인 공주 Catalina와의 이혼 승인 요청
- Catharine of Aragon- 이사벨 여왕의 막내딸, Carlos 5세의 이모(헨리 7세의 장남 아서와 결혼 후 사별)=> 헨리 8세 사이에 메리 튜더 낳음 (Bloody Mary, 가톨릭의 수호자)
- 이혼 승인 거부=> 영국 국교회 수장이 됨
- 1536년 가톨릭 교회 해산, 수도원 폐쇄, 교회 재산 압수

- 헨리 8세, 6명의 아내에게서 3명의 자식=> 메리, 엘리자베스, 에드워드(제인 시모어)
- 에드워드 VI(왕자와 거지), 1547년에 9살의 나이로 왕위 계승, 6년만에 사망
- 1553년 메리 1세 즉위(1553-1558)=> 대규모의 신교도 숙청, 스페인의 내정 간섭
-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(스페인 국왕보다 11살 많음, 펠리페의 고모)
- 결혼 후 영국민의 반발, 반란 발생, 진압
- 펠리페는 결혼 후 2년만 영국에서 생활 후 스페인 귀국

-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- 로마교황청과 결별, 영국 성공회 수장 공포
- 펠리페 2세의 청혼- 거절 “나는 영국과 결혼했다”
- 스페인과 네덜란드 전쟁, 스페인의 봉쇄조치로 네덜란드와의 무역에 타격, 양모와 방직품 수출입 못함
- 해적왕 드레이크 등장(세계일주 성공, p.193)
- 1570년을 전후해 잉글랜드 북부에서 가톨릭 귀족들 반란,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 참수=> 스페인, 전쟁 선포

- 1588년 스페인의 영국 침공=> 무적함대 패배(드레이크, 칼레항 돌출부에서 스페인 무적함대 공격, p.197)
- 1596년, 펠리페 2세, El Escorial에서 사망=> 막대한 부채 남김
- 스페인 황금시대 종말
- 펠리페 3세 왕위 계승- 게으르고 향락 즐김
- 잔존하던 무어인 275,000명 아프리카로 전원 추방
- 무어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파산
- 종교재판소 존립 위태로워짐(p.202)
- 막대한 전쟁비용,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, 아메리카에서 유입되는 은은 물가양등 초래, 유입된 은 중 극히 일부만 스페인에 남고 대부분 암스테르담 등의 금융시장으로 유출 (라틴아메리카, 식민지의 식민지화, p.192)
- 스페인 자본축적 실패(pp.191-192)

- 금융시스템 마비된 상태에서 막대한 은의 유입은 인플레이와 사치, 향락만 초래
- 은 유입은 역석적으로 스페인 제조업 발전을 저해,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초래
- 15세기 중반 스페인은 북유럽에 1만 7천개의 양모 수출 16세기 초 아일랜드 양모가 북유럽에서 스페인의 양모 대체, 스웨덴 철이 스페인 빌바오 철과 경쟁, 아메리카 실크 유입, 플랑드르의 디자이너들 스페인 의류 시장 석권, 프랑스인들 스페인의 유리 와 실크 생산업 진출

- 스페인의 대아메리카 무역의 5/6가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채워짐
-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까지 Cadiz에 있던 84개 무역상사 중 스페인인이 경영하는 곳은 12개뿐이었음
- 30년 전쟁 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=> 스페인 2류 국가로 하락 => '뼈만 남은 거인'

- 1700년 11월 1일 죽은자의 날(el día de los muertos): 스페인 합스부르크가의 마지막 군주 Carlos II 서거 (백치군주)
- 프랑스 부르봉왕가 루이 14세의 손자 Felipe V 집권 (프랑스와 영국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=> 프랑스의 승리)
- 스페인 왕궁의 프랑스화(베르사이유궁 모방)
- 18세기 계몽의 시대(장 자크 루소) => Jovellanos, Goya
- 프랑스 혁명, 나폴레옹 집권

- Carlos IV , 왕비 María Luisa(La Parmesana)에 의해 조정<=> 연인 Godoy 재상 임명(1792, 당시 27세) (고도이 18세-왕비 34세)
- 프랑스 혁명, 나폴레옹 집권
- 민중봉기, 황태자 Fernando VII 등극
  - => 나폴레옹 마드리드 입성
  - => Carlos IV, Fernando VII, María Luisa 납치
  - => 형 조제프 스페인 왕에 옹립
  - => 스페인 민중의 봉기 (1808년 5월 3일의 총살)
  - => 나폴레옹의 실각
  - => 1814년 Fernando VII 재등극
  - => 계몽정신 무시, 절대왕정 재개

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창이 닫힙니다



**자료출처: Carlos IV of Spain and His Family  
(Francisco de Goya, 1800)**



**자료출처: The Executions of the Third of May, 1808  
(Francisco de Goya, 1814)**

# 라틴아메리카의 독립

- 1808년-1810년 독립운동 시작
- 1824년경 거의 전 식민지가 독립
- 식민지에 불과 45,000명의 스페인군 파견하여 독립군과 대립
- 독립의 원인: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반도 침공, 프랑스 혁명, 미국의 독립, 식민지의 내적 갈등, Felipe VII에 의한 절대왕정의 재개
- 독립당시의 라틴아메리카 인종구성:
  - 백인(스페인인 + Criollo) 20%
  - Mestizo 40%
  - 인디오 30%
  - 흑인 10%

- 19세기초까지 Criollo들 스페인 본국에 강한 혈연적 유대감 가짐
  - => Criollo들의 스페인인들에 대한 불만고조, 나폴레옹 집권시 라틴아메리카 방치, 라틴아메리카 스페인 관료들의 전횡
  - => 정치·경제적 이해관계 대립
  - => 정체성 인식 시작, 독립운동전개
- 독립전쟁 당시 criollo들의 군사지도자화
  - => 스페인 caudillo 전통의 부활
  - => 독립의 대가로 토지소유 늘어남
  - => 라틴아메리카의 질곡시작
  - => 대지주 + 군부 + 교회

# 라틴아메리카의 확장

- 전세계 4억 이상의 인구가 스페인어 사용  
=> 급속한 확장세
- 미국 내 히스패닉의 빠른 증가율(연 5%)
- 미국 전체인구의 13%(3천 7백만명)  
=> 흑인 제치고 최대의 소수인종집단으로 부상(US Census 2003년 1월 21일 공식발표)
- LA 등 남서부 지역=> 히스패닉이 전체인구의 50%이상 차지=> 백인 제치고 majority 부상
- 2050년경에 미국 전체 인구의 50% 넘을 것으로 전망